**웹매거진 CHINHUNG Vol. 29 오픈합니다!!**

이제 찬바람이 옷속에 속속들이 들어오는 겨울이 되어갑니다.

2013년 새해 첫날 ‘올해의 계획’을 세운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도 겨우 한달 반여 남짓만 남은 상태입니다.

진흥 가족 여러분은 올해의 목표나 계획 잘 이루고 계신가요? ^^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좀더 열심히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봅시다!!!

자 그럼 이제 ‘Web-magazine CHINHUNG Vol. 29’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기는 진흥입니다 : 진흥 패밀리의 농촌체험기**

올해 입사한 전략기획팀 김봉수 사원이 두번째 1사1촌 봉사활동을 다녀온 소감을 적었습니다. 적당히 선선해진 바람과 따뜻한 햇볕을 맞으면서 농촌체험 방문기 같은 하루를 보냈다고 하네요.

특히 이번 년도부터는 자녀를 동반한 직원분들이 많아서 더욱 웃음꽃이 활짝 핀 현장이 되었다고 하네요.

**Architecture : 세월의 흐림을 담는 건축물 – 크렘린 궁과 붉은 광장**

지금의 30대까지는 아마도 여기를 ‘소비에트 연방’으로 지도에서 찾는 것이 익숙한 세대일 겁니다.

지금은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러시아. 비록 우리가 이념의 갈래로 인해 오랜 시간 거리를 두었던 국가이지만, 과거 동유럽의 한 축을 담당했던 국가로서의 러시아는 잃어버렸던 시간만큼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나라 중 한곳입니다.

이번 Architecture에서는 하얀 눈과 가장 잘 어울리는 러시아의 크렘린 궁과 붉은 광장을 소개합니다.

**Today In Chinhung : 현장 소식 업데이트요~!!**

이제 싸늘한 바람이 더 자주 불어 옵니다. 그래도 우리 현장에서는 열정과 에너지나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동절기를 준비하기 위해 더욱 바빠진 진흥기업 현장들이 전하는 이달의 ‘우리 현장 소식’ 입니다.

**우리 현장 맛집 · 멋집을 소개합니다 : 철의 도시가 아닌 사람 냄새가 가득한 곳. 포항**

이번 추천합니다 코너에서는 포항장량LH현장의 김동완 사원이 현장이 위치한 포항에 관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

이미 우리에게 철의 도시로 잘 알려진 포항이 사실은 어느 도시보다도 사람 냄새가 가득하고, 아름다운 풍광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이번 추천합니다 코너를 읽어보시고, 포항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진흥 생활백서 : 한국인 힘의 원천, 김치**

한겨울을 대비해서 하는 겨울맞이 중 가장 큰 행사는 아마도 ‘김장’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요즘은 마트나 온라인에서도 아무때나 편리하게 김치를 구매할 수 있다곤 합니다만, 그래도 역시 김장만큼은 틀리지 않을까요?

어릴 적, 열심히 김치속을 넣으시는 어머니 옆에서 하얀 절인 배추잎 하나에 붉게 양념된 김치속을 말아 한입에 넣었던 경험은 지금 생각해도 입에 침이 고이는 일입니다.

이번 진흥 생활백서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반찬 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